

광주시의회 '광주·대구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 제동

분회의 상정 보류...정무창 의장 "충분한 공론화 거쳐달라"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제출시한 이달말...무산 가능성 높아

‘달빛동맹’ 광주시와 대구시가 추진중인 ‘2038 하계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광주일보 10월18일자 1면> 공동 유치 동의안이 양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후속 절차 추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대구시의회에 이어, 광주시의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18일 제311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동의안 처리방식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간담회에서는 미흡한 공론화 절차와 수천억 원대 지방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한 신중론과 반대론이 일면서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지 꼬박 11일 만이다. 이날 결정은 시민단체 반발과 의회내부 신중론에다 전남 공동유치 파트너인 대구시의회가 상임위 단계에서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유보(보류) 결정을 내린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1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을 논의했으나 토론 끝에 결국 유보 처리했다. 대구시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막대한 예산 부담과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기재부 심의를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의안 역시 소통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동 유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대신민 여론조사와 합동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광주와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유치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두 도시의 의회 모두 공동 유치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청서 제출시한이 임박해 개최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법적 시한에 맞춰 동의안을 요청한 것으로, 의회가 동의하지 않

면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 동맹’ 차원에서 지난해 5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선언했다. 이용선 전 광주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유치준비위원회를 꾸려 의욕적으로 유치가 나섰다.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은 45개국에서 1만5000여명이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3246억원, 지방비 4593억원, 사업수입 2978억원 등 총 1조8177억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광주 시민 506명, 대구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7.9%가 찬성했다. 한국스포츠택재과학원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1로 나와 유치 당위성도 확보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완도항, 기상특보 땀 주차전쟁” “7개 섬 운임 지원 예산 바닥”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美 남도장터 문제점 등 지적 명찰 부착한 의원들 ‘눈길’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18일 열린 ‘제 36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 기상특보 발령 시 대피항만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완도항, 조기 종료된 섬 방문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료, 미국 남도장터의 온라인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섬 찾는 일반인들의 여객선 운임으로 지원 예산 벌써 다 썼다. 어떻게 할텐가?”>이철(완도 1·민주) 의원은 “완도항 일대 진행중인 중앙 방파제 건설공사와 유선부두 준공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기상 악화 시 선박들의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완도항의 경우 기상특보가 내리면 피항 어선 수백 척이 몰리면서 주차 경쟁이 벌어진다. 완도항을 주로 이용하는 어선만 541척에 이르지만 피항 공간이 워낙 좁아 육상으로 배를 끌어올려 정박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진행중인 중앙방파제와 유선부두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항 공간은 472척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 의원은 또 7개 섬(가거도·거문도·여서도·소안도, 노하·보길도, 넓도) 8개 구간의 경우 섬을 찾은 여행객들의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완도 노하·보길도 노선은 지난 12일 예산(1억)이 조기 소

진됐고 다른 노선도 다음달까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외국인 대상 쇼핑물인데 한국어로 홍보해도 되냐?”>박선준(고흥 2·민주) 의원은 지난 9월 개장한 외국인 대상 남도장터US의 초기 운영상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외국인 대상 ‘Namdo Market US(남도장터US)’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정작 같은 페이지에 마련된 AI 고객센터는 한국어로만 운영되는가 하면, 홈페이지 내 첨부된 전남 홍보영상(3분50초)에서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만 제작된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미교포만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이냐”면서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면 한국어로만 고객센터를 운영하거나 한국어 홍보영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찰 부착하고 도정질문 나서 눈길도=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임시회에 참석, 눈길을 끌었다.”>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0명의 의원들과 농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전남도의회 XXX’라고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달고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서거나 본회의장을 찾았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61명의 의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고려한 것으로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대리인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전 지역에 생중계되는 만큼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평에서 가을향기 만끽 18일 오전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유치원생들이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주 무대인 국화밭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엑스포공원과 주변 관광지에서 오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17일간 열린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버스커즈 월드컵in광주’ 흥행 대박

1억 우승상금 주인공은 英 안코드 씨...충장축제 세계화 신호탄

광주와 광주 동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컵페스티벌의 컬러콘텐츠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in광주’가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in광주’는 광주시의 대표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 세계화와 새롭고 활력 넘치는 끝없는 광주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도됐다. 특히 전세계 길거리공연 뮤지션을 대상으로 버스킹 오디션에 거쳐 최종 우승자인 골든버스커즈 1개 팀에게는 1억원을, 준우승 1개 팀에는 3000만원 등

총 상금 1억9400만원을 시상하는 대형 음악 경연대회로 진행돼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회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세계 뮤지션의 참여 접수를 받은 결과 45개국 539개 팀(국내 388개 팀, 해외 151개 팀)이 신청했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예선에는 36개국 251개 팀(국내 151개 팀, 해외 100개 팀)이 진출했다. 이중 25개국 120팀이 본선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어 8일부터 16일까지 본선 3차에 걸친 토너먼트 방식으로 기량을 겨뤘으며, 최종 16강 팀이 지난 17일

‘추억의 충장축제’ 주무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결선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장르·국적 불문의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1억 우승상금의 주인공은 영국 런던 출신의 안코드 씨(Ancod Abe Zaccarelli)에게 돌아갔는데, 안코드 씨는 2014년 서울 교대역에서 ‘춧불 하나’를 노래한 버스킹 공연 영상으로 유튜브 조회수 600만회를 상회하며 소셜네트워크(SNS) 스타로 이름을 알려온 뮤지션이다. 이어 준우승 실버버스커즈상에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선호’가, 3등 브론즈버스커즈상은 스페인 국적의 ‘Borja Catanesi’와 한국의 전통국악을 케이팝(K-POP)으로 재해석한 ‘국악인가요’ 등 2개 팀이 수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